

# 전환기의 제도개혁이 조직변화와 마케팅 혁신에 미치는 영향

:거시마케팅 관점에서의 잠정적 모형\*

## The Effect of Institutional Reforms on Organizational Change and Marketing Innovation :A Tentative Model in Macromarketing Perspective

여운승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yeows@hanyang.ac.kr](mailto:yeows@hanyang.ac.kr)

본고에서는 신(新)성장이론과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환기의 경제자유화 과정이 경쟁의 기반을 어떻게 재규정하고 전략 또는 조직의 변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유발시키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한 변화는 기존의 조직유형과 경제자유화 이후에 탄생된 새로운 기업들로 기술되었다. 본고에서는 동태적 경쟁과 마케팅 혁신의 추동력에 관한 몇 가지 명제를 도출하였다. 그러한 명제들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우리 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소득수준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시장지향적 제도개혁과 마케팅 행동상의 변화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으로 야기되는 주요 정착성에 초점을 두었다. 제시된 명제들은 제도개혁이 전환기의 경제적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신(新)성장이론의 관점과 제도개혁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에 관한 이론과 실증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 논문접수 : 02. 09 게재확정 : 02. 10

본 논문은 2002학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머리말

1980년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변모는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시장개방과 독점규제 철폐,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기간 중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계획경제가 붕괴되어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었고, 남미국들은 사실상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공공부문 주도하의 공업화 계획을 탈피하여 외연적 발전전략으로 선회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동남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는 이 지역 국가들의 자본시장 개방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들에서 사유기업이 중심점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변화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국가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가 순조롭지 못하거나 실패한 경우도 발생하였음은 물론 금융, 외환, 연기금 등에서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개혁을 표방하던 정부는 계층간의 소득격차 확대와 공기업의 민영화와 신생기업들의 도산에 따른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였다(최윤재 2000). 국가에 따라 개혁과정이 지체되거나 국부적으로 시행되었고 개혁의 속도가 완만하거나 잘못 시행되기도 하였다(이해춘·임병인·정현식 2001).

이와는 달리 경제성장속도가 제도개혁의 정도와 질적 수준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강력한 증거를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수의 문헌을 찾아볼 수 있으며(한진희, 김종일 1999; 김종일 2001; Knack 1996; Keefer and Knack 1997), 경제정책의 안정성에 따라라도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Brunetti, Kisunko, and Weder 1998).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를 포함하여 전환기에 있는 일부 국가들의 경험과는 달리, 제도개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도 제시된 바 있다(Scully 1998).

제도개혁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이득은 경제적 과정이 영리부문의 사유화로 이전되는 결과로 발생하는 효율증대와 혁신의 촉진에 기인한다(Edwards 1993). 물론 실패한 경우도 발견되지만, 이에 관한 사례는 민간기업은 물론 민영화된 공기업, 그리고 다수의 산업부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Aulakh, Kotabe, and Teegen 2000; Ickis 1997; Perez-Aleman 2000).

그러나 전환기에 있는 국가에서 제도개혁이 산업수준에서의 공급 시스템과 개별 기업수준에서의 마케팅 혁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총체적 성장과 효율을 증대시키는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물이 나와있지 않다. 본고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두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시적 제도개혁과 기업의 경제적 행위간의 연관성에 관하여 일련의 명제들을 설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전환기에 있는 국가에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책지향적 명제들을 개발하여 검증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sup>1</sup>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의 지속가능성은 민간부문의 자율화와 이에 따른 장기적 역동성에 달려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거시적 개혁에 집착하여 민간부문에서

<sup>1</sup> 본고에서 '전환기에 있는 국가'라 함은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1997년 금융위기를 맞았던 우리나라와 동남아의 신흥공업국, 1980년대 중반 이후 계획경제의 붕괴로 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방향을 전환한 러시아와 동구 제국,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과거의 공기업 중심의 공업화를 탈피하여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남미제국을 통칭하며, 이들의 주도 공통점은 제도개혁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도하여야 할 변신모색을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치부할 경우가 많다. 외자유치와 기술도입으로 기업들이 선진국 경영기법을 습사리 따라잡으리라고 단순하게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의 개혁유형(예컨대 민간기업들에 유리한 지배의 종류)은 제도개혁의 경제적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제도개혁은 거시경제적 안정화, 민영화 및 자유화 프로그램들이 내부의 중심부를 이루고 재산권의 재규정, 법제 개혁, 금융부문 개혁, 정치개혁, 기업개혁 및 기타 사회적 프로그램이 보다 광범위한 연속적 연결고리를 이루는 동심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도 개혁의 추가 연결고리로는 유권자, 이해관계 당사자 및 여타 정치적 요인들이 포함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개혁이 정착되는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 시스템과 사유기업을 다루어야 하는 제도개혁은 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North(1994)가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제도개혁의 경제적 결과가 단순하지 않고 의사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할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제도개혁과 이에 따른 기업변신간의 연관성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가 올바르게 진행되면 한 국가의 경제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고의 연구체계는 한 국가의 성장이 미시적-거시적 연계성의 결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할 두 가지 부류의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 첫째는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ies)(Nelson 1995) 패러다임을 원용하여 재산권 확대, 정보의 보급과 확산 및 시장경쟁이 경쟁기업들간에 보유자원과 혁신속도상의 차이를 어떻게 확대시키고 그러한 차이가 기업성과의 결정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그와 같은 이질성의 증가가 전환기에 있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기술적 변동을 가속화하는 이유도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차원에서의 신성장이론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학습역량 이론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도변화가 기업의 전반적 지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가설들을 도출한다. 본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경영관리 및 전략분야에서 개발된 미시적 차원의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 이론(Resource Advantage/Dynamic Capabilities Theories)(Barney 1991, 1999); Teece, Pisano, and Shuen 1997)을 원용하여 기업이 경쟁자를 제치고 당해 산업 및 관련산업에서 경쟁적 모방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차별적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전반부에서는 제도개혁이 전반적인 시장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고, 후반부에서는 기업들간의 행동상의 차이와 그러한 차이가 제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게 된다.

본고의 또다른 목적은 이러한 명제들이 지역과 환경적 특성, 그리고 제도적 전통과 과거의 정권 형태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한 국가의 발전 정도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개발경제학의 접근방법을 탈피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중남미 및 동구지역의 국가들을 예로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개발경제학에서도 포괄적 접근방법을 택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본고에서는 국가간에 경제자유화에 대한 접근방식과 그 결과에 차이가 형성되는 데 있어 문화적 요인 및 역사적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North(1994)가 올바르게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어떠한 국가이든 경제성장의 결과를 가져올 제도적 장치를 선택할 특유의 경향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말하는 “외부(external)” 제도와 “내부(internal)” 제도(예컨대 국가구성원과 조직기관들의 가치관, 규범 및 신념 등)간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한 국가에서 준수되지 않는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둘째, 역사면에서의 뚜렷한 차이는 반드시 자명한 것은 아니며 어느 한 지역에서의 특유한 변화의 원인에 관하여 마치 유의미한 보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그것을 여타 지역에서도 검증하기 힘들 경우가 흔히 있다. 예컨대 러시아는 중부 유럽과는 달리 르네상스, 종교개혁 및 산업혁명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갖지 않았고 따라서 상이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그와 같은 경험이 없었고, 남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지적되었다(Vargas Llosa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20세기말에 이르러 신속하게 발전된 반면에,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칠레는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간 페루와 에콰도르보다 신속하게 발전하여 왔다(Carman 1998).

셋째, 미시적-거시적 연계성을 국가간 또는 지역간의 문화적 내지 역사적 유사성이나 차별성을 토대로 모두 설명한다는 것이 부정확할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예컨대, 사후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와 일본 및 대만의 발전경험은 노동인력의 높은 교육수준, 저렴한 노동력, 중앙집중적 산업구조, 분권화된 산업구조, 신기술 차입과 응용능력, 혹은 신기술 개발능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모순될 뿐 아니라 극히 단순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 이유는 그러한 요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경제조직과 현장에서의 관찰가능한 경제적 과정들과의 연계성을 거시적 차원에서 설명한다는 것이 유용하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시적-거시적 연계성에 관한 연구의 부족이 거시경제학의 근본적인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Wilson, 1998, pp.197-98). 이와 관련하여 Edwards(1993)는 성장이론에서의 이론개발이 미시경제적 분석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화적 및 역사적 요인들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본고의 모형에서 그러한 요인들을 제도개혁의 정도와 질적 수준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도 발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론화하지 않기로 한다. 그보다 전반적 과정과 그러한 과정의 결정적 요소들간의 연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필자는 믿고 있다. 그리고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은 시장(그것이 수입시장, 국내생산시장, 화폐시장, 또는 자본시장 등 어떠한 형태이든간에)을 통제하고 시장규율을 은폐하려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2. 신성장이론과 전환기의 제도개혁이 마케팅 혁신에 미치는 영향

### 2.1 신성장이론과 제도개혁

국민소득의 비(非)수렴성(즉 성장률의 지속적 차이)에 관한 경제적 설명은 그것이 고전이론에서 비롯되든 또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어디이든간에 변수들이 누락되거나 지나치게 단순한 과정으로 취급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단기적으로 볼 때 제도개혁과 경제적 인센티브가 혁신과 성장을 어떻게 추동하는가를 이해하는데 본고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학자들간에는 기술혁신과 자본과 노동투입물의 효율적 이용이 비수렴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Romer(1990, 1994)와 Grossman 및 Helpman(1990)은 신성장이론의 제목하에 다수의 거시경제적 실증분석을 행한 바 있다. 거시마케팅(macromarketing)에 관심을 두는 연구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관점이 특히 적절하고도 유용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이유는 Nelson(1995)이 주목하였던 바와 같이 신성장이론이 고전이론이나 여타 설명으로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세계에서의 제(諸)조건들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들이란 비(非)단일적 규모수익, 상품시장 및 요소시장에서의 기술혁신, 지식기반의 자본과 비교우위, 행동을 통한 학습, 시장의 불완전성, 제품차별화와 이질적 시장수요, 글로벌 경제를 토대로 하는 해외교역의 기회, 신속하고 저렴한 글로벌 통신의 발달과 정보의 보급, 확산 등을 말한다. 신성장이론은 성장과 차별적 성장을 설명하는데 기술진보와 이를 뒷받침할 토대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고전경제학에서는 제품차별화와 이로부터 획득되는 '독점' 이윤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소득균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반면에, 신성장이론은 동태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성장이론은 North(1994)의 관점을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이 자원배분의 효율보다 적응력이 있는 효율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일을 동일하게 행하기보다 새로운 일을 행하거나 일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보다 고도의 생산함수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적응적 학습은 사실상 사유과정의 재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성장이론가들은 적응적 학습을 지속시킬 조건들을 분석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들은 조직에 의한 기업가적 행위가 핵심적 동인임을 제안하고 있다. 즉, 모든 조직은 경쟁에 의한 동기유발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새로운 방법들을 창안하고 활용하여 슈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 패턴을 따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그와 같은 행위가 제도적 환경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고 모든 조직이 기업의 학습과 적응력을 고무할 일상적 과정을 보유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제안하고 있다(Nelson, 1995). 그들이 말하는 제도란 "공식적 제약조건(예컨대 규정, 법률, 헌법), 비공식적 제약조건(예컨대 행동규범, 관습, 자기강제적 행동규율) 및 이들의 시행특성"을 지칭한다(North, 1994, p.361). 따라서 제도에는 제법규와 그 시행과 같은 외부환경뿐 아니라 학습된 가치관, 규범 및 신념과 같은 문화적 내부환경도 포함된다. North(1994, p.361)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제도와 조직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이 되는 문제는 전환기에 있는 국가의 통상적 불완전시장에서 독점지대를 회수하기보다는 슈페터적 의미에서 기업들이 조직혁신을 꾀하고 자신들의 자질을 학습할 것을 고취하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시도한 구조개혁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이다. 더구나 여타 기업들도 선발기업을 성공적으로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공한 기업들의 새로운 일상적 과정이 이어짐에 따라 그것이 조직문화에 고착되면 혁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기업들도 혁신을 수용함에 따라 새로운 정동파적 관행이 고착되면 그 이상의 적응적 학습이 저해된다(Henderson and Clark 1994). 따라서 경쟁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의 결핍, 불확실한 정치적 환경, 불안정하거나 예측불가능한 정책, 불량한 법시행 메카니즘, 부패, 또는 법규의 준수 거부 등의 제도적

환경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그 작동을 방해함으로써 혁신을 감소시킬 것이다.

신성장이론의 기초에 따라 행해진 실증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지지하고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제도적 특성이 보다 장기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즉, 교육 및 의료부문에 대한 사회정책과 개방경제정책(Scully 1998), 재산권 보호와 전반적인 경제적 권리에 대한 비간섭(Barro 1996), 계약의 시행과 법규준수(Keefer and Knack 1997), 정치적 격변에서 결과하는 경제적 위험의 감소(Knack 1996), 그리고 금융 및 재정정책의 안정성(Brunetti, Kisunko, and Weder 1998)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타 이와 관련되는 두 가지 결과가 안정적이고 적합한 제도적 틀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 하나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와 소득과의 관계이다. 비록 제한된 증거로 제시되지만 민주주의(집회의 자유, 자유선거 및 투표로 결정된 정권 등의 적극적인 정치적 권리의 의미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만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와 상반되는 역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소득분배가 극히 불평등한 국가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소득재분배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게 된 계층간에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이다(Alesina and Perotti 1994). 단기적으로 볼 때 제도개혁과정에서 사회적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종사자들이 제거됨으로 인하여 전환기에 있는 국가의 개혁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에서 내부제도환경, 즉 기업의 종업원과 관리자를 포함하여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규범 등은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부제도환경의 변화만으로는 제도개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또한 North(1994, p.364)가 언급하였던 “사회의 누적학습”(the cumulative learning of a society)에 관한 적절한 이론이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지지하려면 적응적 마케팅 혁신을 포함한 기술개발과 제도, 기업 및 산업의 발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Nelson 1995, p.82)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마케팅 맥락에서 제도개혁과 적응적 학습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외부제도와 내부제도간의 조화에 관한 가설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특히 경제제도개혁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바,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실증연구가 그것이 성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제도와 외부제도와와의 조화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탐구가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은 본고가 포괄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신성장이론에서는 새로운 조직역량과 학습역량의 개발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견인차인 것으로 본다. 이제 제도개혁이 조직행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2.2 제도개혁과 마케팅 동태성 : 적응적 학습, 이질성 및 고착

다국적기업들로부터 경쟁이 노출되면서 보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개발되고 있다. 첫째, 진입장애와 경쟁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과거에는 불가능하거나 불법이었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수입대체산업 육성시대에는 현지에서 입수가능한 투입물로 생산하여야만 되었던 제품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의 대응패턴은 현지조건에 대한 창조적 적응방법의 개발이다(Arnold and Quelch 1998). 대형 슈퍼마켓을 개발하기 위한 다국적 소매상과 현지 유통업자와의 합작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세번째는 현지 토종기업들의 혁신적 대응전략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토종기업들이 자원우위를 확보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력을 중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문헌을 찾아볼 수 있다(Dawar and Frost 1999). 현지의 청량음료수 생산기업들이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는 다국적 청량음료수 기업들의 표준화된 포지셔닝 전략에 대응하여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제도개혁이 이질적 기업들을 산출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들간의 차이도 노출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장부문들이 형성되며, 새로운 시장부문의 출현에 대해서는 본고의 후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면에서의 변화가 결합되면 동일 산업에서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기업이 완전독점의 지위를 누리지 않고도 수익증가의 경험도 갖게 된다. 적용적 마케팅 혁신이 제품과 생산공정에 이식되면 그로 인한 혜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면에는 한 산업이 정체될 때 현행의 강압적 기술논리가 팽배하여 기업들이 현재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한다(Klepper and Graddy 1993).

기업들이 쉽사리 바뀔 수 없는 조직특성을 중심으로 군집되는 한정된 범위의 활동에서만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Rumelt 1991) 혁신이 정체될 수 있다. 제품혁신의 속도가 둔화되고, 제품의 다양성이 감소되며, 비용절감을 위한 공정혁신에 주력하게 되는 것이다(Klepper and Graddy 1993). 전환기에 있는 국가의 시장개방은 광범위한 글로벌 경쟁의 영향으로 혁신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Edwards 1993). 그러므로 신성장이론은 완전경쟁과 동질적 수요와 공급을 가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신고전 경제학과는 달리 특정된 균형점을 찾으려 한다거나 균형에의 수렴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성과 혁신에 관심을 두는 동태적 과정 모형을 내포하고 있다. 이 이론은 상이한 발전경로를 형성하는 요인들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2.3 제도개혁이 공기업, 재벌기업 및 기업지배에 미치는 영향

신흥공업국을 포함하여 전환기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자원통제와 법적 규제를 통하여 경쟁요인들을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과 특수한 기업형태(특히 공기업과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1인 지배 내지 족벌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재벌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의 두 가지 요소를 간과하면 그 시장환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된 바 있다(Austin 1990). <표 1>은 시장개방 이전의 공기업과 재벌기업의 전형적인 전략을 요약한 것이다.

공기업은 천연자원, 기간시설(infrastructure) 및 기술분야의 산업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세계의 대기업 가운데 20개가 개발도상국의 공기업이었고, 이들은 국내총생산의 7% 내지 15%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에서 방대한 부문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과 시장지배력은 정부예산과 신용공여에의 접근용이성에 있었고, 국가경제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프로젝트와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기업이 가격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amamurti 1987). 중앙집중적 경영권과 정치권력에 의한 최고경영진의 교체는 첨단기술분야에서조차 혁신이 둔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른 한편 재벌그룹은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지 않았던 국가에서 수입대체의 주요 수혜자였다. 이러한 재벌그룹은 우리 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12%를 차지하고

있고(한국은행 2002) 필리핀의 경우에는 공업 및 산업부문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Austin 1990, p.126). 중남미의 모든 국가에서도 이러한 재벌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재벌그룹은 공기업과는 달리 대부분 고도로 다각화되어 있다. 재벌그룹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족벌과 인맥에 의하여 계열기업이 경영된다(Khanna and Palepu 1997). 재벌그룹의 지배적 역할은 시장의 불완전성, 제도개혁의 취약성, 위험과 거래비용을 증가시킬 불확실한 정치적 환경 등에 기인한다(Khan 1986). 고도로 다각화된 재벌그룹은 정부로부터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교섭, 희소한 노동력의 확보, 계열기업간의 조정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Khanna and Palepu 1999a). 이러한 재벌그룹은 자본시장, 노동시장, 경영교육 및 기술이전을 내부화함으로써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장제도가 미흡한 전환과정의 초기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논거가 있다(Khanna and Palepu 1999b). 그룹 내 기업간의 관계는 신뢰와 충성도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간의 거래는 낮은 신뢰와 정보의 불균형으로 왜곡된 시장이 극히 불완전한 경우의 공개시장 거래보다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Frazier and Kale 1989; Frazier, Gill, and Kale 1989). 규모도 정부와의 교섭력에서 유리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특히 신규사업부문에 대한 투자승인 획득, 정부계약과 이권 입수, 국제경쟁으로부터의 보호 확보 등의 면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이 되면 재벌그룹의 해체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시장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논거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특히 금융 및 자본시장이 전환기의 경제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는 점이다(Weisman 1996).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제어하게 되면 족벌기업과 그 관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과도한 부채비율의 결과로 초래하기 쉽다.<sup>2</sup>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의 경우, 재벌그룹과 정부의 밀착은 정부의 재벌해체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재벌그룹이나 공기업이 특정된 경제부문에서의 활동을 인가받으면, 일반적으로 초과시설을 보유하고(한진화 1999), 원료 및 부품공급처를 후방통합하며, 시장을 과점적으로 지배하게 되어, 이에 따라 초과이익을 확보할 가격이나 정치·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가격을 책정하며, 잠재적 시장진입자를 효과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 메카니즘이 왜곡될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고 제조업이나 유통부문에서 공정혁신의 인센티브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김성철 2000). 이와 마찬가지로 가격인하, 제품혁신, 시장세분화, 수요의 이질성 제거, 유통경로에서의 서비스 강화 및 비용절감 등의 인센티브가 거의 소멸된다. 마지막으로 재벌그룹의 긍정적 외부경제효과를 주창하는 사람들도 재벌그룹의 다양화에 기인하는 이득과 제도개혁이 정착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상승이 상쇄되는 접점을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발견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재벌그룹화로 인한 이점이 감소하고 계열기업의 확대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체감되는 접점이 존재한다. 자본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면 국내의 외국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재벌그룹과 그 계열사들이 자금의 조달과 운영 및 관리방식이 하나의 기업처럼 이루어진다(Khanna and Palepu 1999a).

<sup>2</sup>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그룹은 비재벌그룹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높은 비율의 부채구조를 보여왔고(이종화·이영수 1999), 이것이 이윤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초래한 원인으로 추정되며(전인우 2000; 최경표 2000). 정부 및 금융기관과 재벌기업의 밀착이 과도한 부채구조를 결과한 것으로 추정된다(조성욱 1998). 이러한 역사적 증거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윤하(2001)는 인위적 규제나 보호가 은행산업의 파행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벌의 은행소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공기업과 재벌기업의 특성 비교

	재벌그룹	공기업
<전략>		
범위	다각화된 기업집단	산업집중
규모	과잉시설과 대규모 산업단지에 시설집중	규모가 중요한 부문에서 과잉시설
가격결정 메카니즘	관리가격, 국가보조금, 이전가격	기업외부에 대한 고가정책과 기업내부에서의 이전가격 및 보조금
세분된 시장부문	지정된 산업에 대한 수량할당충족	내부시장 보호 소비자 시장: 대량시장 산업재 시장: 국가기업과 내부시장 보호
수직적 통합형식	상류기업과 하류기업과의 계약	후방통합 전방통합 또는 하류 경로구성원으로부터 양보를 획득하기 위한 교섭력 이용 (판매자 시장조건)
<자원우위>		
외부	정부예산에서 추가자원 배분과 유리한 이전가격 확보를 위한 교섭	수입보호와 투자, 기술이전 및 외국 투자자와의 제휴에 대한 승인 획득
내부	정보: 그룹내 기업간에 지식공유. 공공부문에서 내부자 정보 접근. 계열기업을 일관된 정책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일인 경영체제	정보: 정치권력과 결탁된 최고 경영층과 간부진이 정치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개발
	기술: 외국 제휴업체의 기술접근	기술: 처음부터 첨단기술을 도입하거나 변형능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능력
	자금: 그룹내 기업간에 위험분산. 기업간 자금이전. 그룹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자금확보	자금: 국가예산에 접근
	인적자원: 결집력이 있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최고경영층에 의한 인력과 자금의 배분	인적자원: 최소한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과점화와 같은 주요 제도가 극심한 내부화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제도는 혁신적 기업의 시장진입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혁신과 혁신적 기업가의 활동이 경제 시스템에 깊숙이 잠입할 때 경제적 도약과 변신이 가능해진다. 대체로 경제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국가에서의 은행들은 혁신적 기업가 내지 창업자에게 융자해 주거나 그 운영에 대해 감시하기를 주저하고 또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많다. 더구나 재벌그룹이 과거에 여타 기술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가 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는 문헌도 있다(Nelson 1994; Oliver 1997).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황은 재벌그룹이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해체되거나 그들의 확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도개혁이 궤도에 오르고 부정부패가 통제되는 시점에 맞추어 금융기관이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시장과 공공정책은 모두 정치와 연루되어 있고, 양자의 정치적 활동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므로 이를 모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은 최초로 그 필요성을 언급하였던 시기보다 오늘날 더욱 적절한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Stern and Reve 1983).

## 2.4 시장왜곡의 축소가 총체적 기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표 2>는 전환기의 국가에서 필요한 제도개혁의 범주를 분류, 요약한 것이다. 표에서는 지면관계로 제도개혁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수의 법률과 규정을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수의 개혁조치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개방으로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보다 용이해지고 이윤송금이 자유롭게 된다. 이러한 무역개혁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긴급한 조치이다. 그 다음에는 재산권, 공정거래법, 기업정보의 공시, 겸임이사 제한, 기업합동(trust)과 계열기업간 상호출자 규제,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금융시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 확립에 대한 규정 등 법률체도의 창안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일련의 제도개혁이 뒤따르고 있다.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정치개혁과 공기업 및 독점사업(전매업)의 민영화를 위한 발판이 된다(World Bank 1996).

이상과 같은 논의는 다음과 같은 가설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 국가와 산업에서의 시장왜곡이 제거될수록(시장왜곡의 정의는 <표 2>참조), 그리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재벌그룹의 역할이 적을수록 경영진은 보다 독자적인 역할을 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보다 효과적이고 대응적인 기업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과정의 출발점이 각기 다르고 제도개혁의 순서와 속도도 모두 다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정치개혁과 민주화의 방식과 속도도 다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성공의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개혁 그 자체만으로는 전환과정과 그 성패를 모두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 여건, 부존자원 및 문화적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 나라와 같이 소규모의 동질적인 국가는 브라질이나 러시아와 같은 대규모의 이질적 국가보다 개혁을 시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무역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한 경험이 없는 국가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개혁시행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러시아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BusinessWeek* 2002, Aug 5). 개혁의 통제와 시행을 위한 새로운 공적 체제의 확립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과정임이 입증되고 있다. 동구에서 개혁의 선도국이었던

폴란드조차 지난 수세기에 걸쳐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던 결과로 제도 및 법률적 전통이 취약한 이유만으로 제도개혁의 개발과 실행에서 여타 동구국가들에 비하여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종교가 개혁실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브라질과 같이 다양한 지역선거구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분열된 국가는 제도개혁의 시행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표 2> 전환기의 제도개혁 부류

<시장왜곡의 축소>

무역개혁

- 무역장벽 축소
- 수출 장려
-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도입 및 인적자본 도입 장려

제도개혁

- 법률제도
- 과산법
- 상거래 규정
- 법인설립
- 재산권 보호
- 집단교섭
- 지적재산권
- 노동권과 피고용자 권리

정치개혁

- 정부 내외의 법과 규율 개혁
- 정부효율개혁

민영화

- 공기업, 독점사업의 민영화
- 소유와 경영의 엄격한 분리

금융제도 개혁

- 중앙은행의 독립
- 투명한 은행경영에 대한 규정
- 은행의 기업지배 배제

<공급 시스템의 개혁>

물류 인프라스트럭처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확장에 대한 투자
- 인프라스트럭처의 민영화 강화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 통신시설의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마케팅과 사업 서비스

- 정보시스템
- 보험
- 공인회계업무
- 광고대행
- 전자지불 시스템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자료원 : Carman(1998), p. 5

요컨대 문화와 문화의 내적 및 외적 표현으로서의 제도가 개혁의 실행능력과 성장 잠재력, 그리고 혁신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은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전택수 1998; North 1990; 기타 앞에서 인용한 문헌들). 따라서 위의 가설을 국가별로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면 각국의 ①개혁의 진행 정도, ②개혁의 성과 정도, ③개혁을 올바르게 신속하게 수행한 정도, ④실행의 성공 정도 및 ⑤문화적 변동 정도 등에 관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다수의 문헌들에는 이러한 요인들의 대리지표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간이나 민주주의의 존재 여부만으로는 성공적 제도개혁의 요체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Stiglitz 1999). 우리 나라가 1961년부터 약 30여년간 군부통치하에서도 개혁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반면, 헝가리는 공산정권 붕괴 후에 비교적 단기간의 민주주의 통치하에서 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민주화의 정도와 그 역사가 제도개혁의 성패 여부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서구의 민주적 통치가 정착되는 데는 장기간의 제도적 진화가 수반되었지만 그러한 정착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현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North 1994). 위의 가설은 여타 요인들도 추가될 수 있지만 경영자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시장개혁과 부패개혁은 민주주의 개혁보다 경제적 성과에 더 중요하다.

가설 2 :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 국가와 산업에서 시장왜곡을 제거할수록, 독자적인 경영진의 역할이 커지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재벌그룹의 역할은 적어진다.

가설 2-1 :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마케팅 및 원료부품공급자-고객-유통경로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적용적 혁신에 배분되는 기업자원의 비율이 클수록, 그리고 정부의 규제조치에 대응하는데 배분되는 기업자원의 비율이 적을수록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높아질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지출의 비율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여 주지 않는다. Garelli(199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비율과 전반적인 경쟁력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러한 상관관계는 완전하지 못하다. 예컨대 선진국 중에서 노르웨이(1997년에 20.2%)와 캐나다(19.7%)는 경쟁력이 높은 상위 12개국에 속하지만 국내총생산에 대한 정부지출의 비율은 거의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 전환기의 국가 중에서 헝가리(10.2%)와 멕시코(8.4%)의 경우, 그 비율은 비교적 낮지만 전반적인 정부 경쟁력은 중위권에 들어 있다.<sup>3</sup>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지출의 규모보다 경제영역에서의 정부활동의 성격과 범위 및 경제적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제공에 의한 선택에 대한 정부의 허용 정도이다.

<sup>3</sup>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도 계획(한국은행 2002)에 의하면 국내총생산에 대한 정부지출의 비율은 24.8%에 이르러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국가경쟁력은 중위권에 머물고 있어(한국개발연구원 2001 p. 270) Garelli(1998)의 보고서가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5 공급 시스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총체적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지금까지 언급하였던 제도개혁은 모두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탈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각되지만 개혁조치들의 시기 선택, 그 중요도와 상호작용 등이 전환기 경제의 동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반적인 제도개혁 외에도 물류, 통신, 금융 및 상거래 정보, 마케팅과 경영에 관한 서비스, 정보 시스템 등의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불가결하며, <표 2>는 이러한 공급 시스템의 인프라스트럭처 구성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는 모두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적응적 마케팅 혁신을 통하여 보상을 획득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공급 시스템의 개혁은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들이 제품개량, 고객에 대한 고도의 서비스 제공, 보다 효율적인 유통경로의 개척 등과 같은 혁신으로 비용절감과 이익증대를 꾀할 수 있다. 이익의 증대는 그 반대급부로 공급 시스템의 혁신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혁신에 대한 투자를 자극한다.

공급 시스템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제도적 틀이 정착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혁은 보다 복잡하면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전환기의 경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개혁이 산업과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고 집단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료 및 부품공급자와 그 고객,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내국 생산자와 수입업자, 중간상과 최종 소비자, 그리고 공공부문과 사영부문의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이 이에 해당된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개혁은 흔히 공공부문 투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분산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채와 민간부채, 그리고 정부의 독점사업과 이에 대한 민영화 허용간에는 상충적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따르며 국가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력, 물류 인프라스트럭처 및 통신 인프라스트럭처는 1인당 국내총생산에 대한 수익으로 볼 때 총체적 평균이 1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한 반면에(Canning 1998), 동일한 연구에서 민간부문의 투자가 원료 및 부품공급자와의 의사소통과 제품이동의 무능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 인프라스트럭처의 새로운 요소들이 자리잡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들은 적응적 학습, 조직에서의 일상적 과업의 변화에 대한 투자, 기업의 전자상거래의 출현으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 체제를 재정비하는 것과 같이 신기술에서 획득되는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습 등에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3 : 공급 시스템(이에 대한 정의는 <표 2> 참조)에서 수행되는 개혁의 정도가 클수록 제품개량, 브랜드 마케팅, 원료 및 부품공급자-고객-유통부문에 대한 서비스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적응적 혁신에 배분되는 기업자원의 비율은 더 클 것이다.

### 3. 자원우위와 동태적 역량 : 기업 및 산업간의 마케팅 행위의 차이

지금까지는 주로 정부에 책임이 있는 시장왜곡의 축소와 공급 시스템의 개혁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 왔다. 또한 새로운 법률제도의 시행이 제도개혁의 성공에 필요하지만 충분조건은 못된다는 점도 언급한 바 있다. 제도개혁의 성패 여부는 기업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행동 및 기업문화와 같은 내부의 제도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Oliver(1997)가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기업들이 거시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러한 변화의 결과로 어떻게 변형하는가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결국 그것은 하나의 복잡한 동태적 과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기업가들은 장기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전환기의 불안정경쟁에서 비롯되는 지대를 추출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취한다.

본고에서는 미시적 차원에서 기업의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에 관한 이론들(Barney 1991, 1999); Hunt 2000; Teece, Pisano and Shuen 1997)을 원용하여 기업이 차별적 자원을 개발하고 혁신함으로써 그것이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산업이나 관련산업에서 경쟁적 모방과 변화를 가져오는 내부조건과 외부조건들을 결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sup>4</sup>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 이론이 기업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신성장이론은 기업 및 산업에 걸쳐 이질성과 혁신이 기술진보를 어떻게 확산시키는가(Hunt 2000, pp.257-59)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이론이 시너지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본고는 전환기의 경제에서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을 연결하는 가교를 세울 이론 검증의 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로 선진국에 치우친 Hunt(2000)의 논거를 연장하여 명제를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는데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3.1 제도개혁이 공급과 수요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경제가 개방됨에 따라 공기업과 재벌그룹은 경쟁을 격화시킬 상이한 환경적 요인들에 직면하게 된다. 수입문호의 개방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허용에 따라 시장 자유화는 상품의 잠재적 공급과 중간상과 소비자들의 제품선택 범위를 증대시켜 생산자 가격의 인하와 유통마진의 감소를 초래한다. 판매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조건이 바뀌고(Frazier and Kale 1989), 이에 따라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품질개량과 다양화, 보다 시의적절한 배달, 구매시점전시, 거래촉진활동, 고도의 광고지원, 보다 자유로운 반품정책과 할인방식 등을 통하여 제품의 가치가 증대된다(Frazier, Gill, and Kale 1989).

이러한 조정과정을 통하여 새로 세분된 시장부문이 형성되고 시장부문간의 수요 차이를 증폭시킨다. 고도의 소비지출능력을 지닌 기업가와 경영자가 출현하고, 개혁과정의 초기단계에서 민간부문의 피고용자들은 화폐 평가절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구매력의

<sup>4</sup> 자원우위론과 동태적 역량 이론의 성격과 발전과정에 관하여는 여운승(2001)을 참조.

감소를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진정됨에 따라 실질구매력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실질임금은 생산성 향상분을 반영하기 시작하며, 경쟁의 격화에 대응하여 가격이 하락한다. 이와는 달리 연금수혜자, 고정소득자, 공공부문 피고용자 및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로 해고된 사람 등은 실질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비지출능력의 양극화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한쪽에서 사치품 내지 고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저급품, 특히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기업과 정부의 보호를 받던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 중간에 품질과 화폐가치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자 시장부문이 존재하며 시장 자유화 이전에 대량시장을 대표하던 조잡한 상품에 대한 이들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다.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체되거나 흔들리게 되면 중산층이 실질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중남미에서 발생하여 왔다(Strategy Research Corporation 1999).

소득불균형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면 소득수준이 계속 증가하여도 소득분배가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고가의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공급 인프라스트럭처와 소매혁신이 결합되어 생필품 가격을 낮춤으로써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기업의 민영화, 기타 공공부문 기업들의 재무성과에 대한 책임강화, 그리고 구매자 시장조건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관이 가격과 서비스를 의식하여 원료와 부품 등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원료 및 부품 공급자들은 판매와 유통방식을 바꾸게 된다. 보통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자족하던 토종 생산자와 유통종사자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부족과 부적절한 조직역량의 이중고를 겪는다. 이와는 달리 항상 고도의 서비스에 치중하던 기업과 새로운 경쟁조건에 적응하려는 신생기업은 제품개발,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에 전략적으로 치중함으로써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기업은 자본보다는 노하우를 더 많이 축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Gillespie and Teegen 1995). 공급과 수요 면에서의 이러한 변화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4 : 제품의 품질, 브랜드 마케팅 및 원료·부품 공급자-고객-유통경로에 대한 서비스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혁신에 대하여 기업의 자원이 배분되는 비율이 클수록, 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간에는 성과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시장과 함께 국내수요의 조정, 외자도입의 기회 증가, 내국자본의 부족, 민영화, 그리고 시장왜곡의 제거 등은 내국기업과 기업가들에게 다수의 기회와 위협을 부여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에 관한 문헌이 특히 유용하다.

### 3.2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에 관한 연구

신고전 경제학에서 기업과 시장에 관하여 비현실적으로 단순한 가정을 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학에서도 기업의 성과가 마케팅 전략과 산업특성간의 적합성에 기인한다는 전략경영 관점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다수의 연구결과는 전략적 포지셔닝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동일산업이나 유사산업에서 비슷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간에 성과의 편차가 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Cool and Dieickx 1993). 이것은 기업에 따라 전략적 기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우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자원은 기업특유의 차별적 보완역량과 숙련기술은 물론 특정사업에서 그러한 역량을 입수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일상적 과정경로 등을 포함하고 있다(Teece, Pisano, and Shuen 1997).

기업자원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자원을 여러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으며 마케팅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부류가 있다(Mckee, Varadarajan, and Price 1989; Narver and Slater 1990; Slater and Narver 1995; Hunt 2000, chaps. 7-8). 그러한 자원의 두드러진 특성, 또는 '핵심역량(core capabilities)'은 ①회소하고 귀중하며 쉽사리 대체할 수 없어야 하며, ②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초기나 적정한 시점에서 그것을 획득하여 최대로 활용되기 때문이거나 그것이 축적된 경험의 산물임으로 인하여 완전한 모방이 불가능하여야 하고, ③그러한 자원이 우위에 있는 이유(즉 자원과 성과의 연계성)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들며, ④실사 그러한 이유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자원특성 또는 핵심역량은 한 조직의 복잡성에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응용하기가 어렵고, ⑤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어려운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Barney 1991). 예컨대 Mascarenhas, Baveja 및 Jamil(1998)은 성공한 기업들이 보다 적응력이 있고 모방하기 어려운 일련의 새로운 조직역량을 개발하였고 이들이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기업들은 내부요인들의 관리를 토대로 하는 역량보다 외부와의 관계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둔 역량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제로 조직문화와 분위기와 같은 기업차원의 제도적(또는 조직상의) 요인들은 산업특성, 기업규모 및 경쟁적 위치와 같은 경제적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성과의 분산 중 2배 내지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Hansen and Wernerfeldt, 1989). 만일 그러하다면 전략적 우위의 핵심은 적절한 조직역량을 발굴하고, 결여되어 있는 역량을 획득하거나 개발하며, 그러한 역량을 응용하는 데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것은 전략적 문제를 다루려면 기회를 발견하기보다는 조직적응력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는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노하우를 개발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는 데 있으며, 이는 공개시장에서 쉽게 획득할 수 없음은 물론 쉽사리 이전하거나 모방할 수 없고, 고객과 중간상 및 원료부품 공급자들간에 명성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Barney 1991). 이러한 자산은 특정된 제품이나 기술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널리 수용하게 되고 전체 산업에 걸쳐 제도적 장치가 개발됨으로써 그 가치가 고양된다(Hunt and Morgan 1995; Hunt 1997).

근래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국가의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응적 혁신에 대한 가능성을 접하게 되고 다수의 혁신 중에서 이용가능한 것을 가려내며 이를 탐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을 공유하는 등의 혜택을 특히 누리게 된다는 가설을 제안한 문헌을 찾아볼 수 있다(Moran and Ghoshal 1999). 또한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실증적 연구도 나오고 있다(Perez-Aleman 2000). 여기에서 말하는 네트워크이란 앞에서 언급하였던 재벌그룹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역적으로 군집되어 신생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그러한 기업들의 지역적 군집현상은 영국의 면방직 공장부터



실리콘밸리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군집현상은 지식의 이전과 학습을 촉진시키고, 공급사슬을 단축하며, 최소한 중간공정단계에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고, 군집 외의 기업들과는 달리 군집 내의 기업들은 동질적 인식을 지니게 되는 경향이 있음이 분명하다(Dyer and Singh 1998). 이러한 우위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다.

조직요인의 중요성은 경쟁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 산업의 점진적 발전이 단지 자원배분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직은 매우 복잡하고 변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산업의 변화는 대개 급진적이면서 적응력이 있다기보다는 점진적이고 배분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전략은 기존의 역량을 토대로 구축되는 경향이 있다(Leonard-Barton 1992). 일반적으로 내부시장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전환기 국가들의 기업들은 경쟁압력이 거의 없음으로 인하여 혁신하려는 인센티브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과 같이 기술혁신이 급격히 발생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조직자원을 완전히 재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는 동태적 역량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태적 역량(dynamic capabilities)이란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능력을 재생할 수 있는 자질”을 말하며, 특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조건에 맞추어 내부 및 외부의 조직기술, 자원 및 기능적 능력을 적응시키고 통합하며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경영능력”을 지칭한다(Teece, Pisano, and Shuen, p. 515). 이것이 신성장이론에서 말하는 ‘적응적 변화’(adaptive change)의 요체이다. 이러한 동태적 역량의 존재는 전환기에 있는 국가의 기업진과정을 이해하는데 극히 중요하다.

### 3.3 전환기에서 적응적 반응 및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에 관한 이론은 주로 선진국의 기업과 시장의 점진적 발전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이론이 전환기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바,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시장 자유화는 시장경쟁력을 형성하는데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더 많이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Austin 1990). 국제적 경쟁과 민간부문에 대한 국내의 투자의 증가로 효율과 혁신이 제고되고 따라서 전환기의 국가경제는 이 이론이 강조하는 요인들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둘째, 이 이론은 경로의존과 초기 계기로부터의 고착을 강조함으로써 시장개방 이전과 시장개방 초기단계에서의 조건들이 시장의 핵심적 참가자들에 의하여 축적된 학습역량과 자원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혁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특정된 산업이 특정된 시점에서 접하게 되는 계기는 기업의 점진적 변화에 관한 한, 일련의 긍정적 내지 부정적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예컨대 시장개방이라는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여 아르헨티나의 포도주 수출상은 외국기업과 새로운 기업들의 진출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칠레의 포도주 생산자들은 저가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전략보다는 고가제품 시장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포도주 가격이 계속 인상됨에 따라 지가와 인건비도 상승함으로써 저가정책은 대부분의 포도주 생산자가 옹호할 수 없는

선택방안이었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적응적 혁신으로 대응한 기업들만이 경쟁력과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Dominguez, Escobar, and Murua 1997).

셋째,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에 관한 이론은 주로 경쟁이 치열한 첨단기술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나(Teece, Pisano, and Shuen 1997), 신기술이란 새로운 생산공정, 새로운 형태의 조직, 경쟁우위를 위한 기반구축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서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 이론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관리의 계획경제에서 자유경제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주요 환경변수의 계기적 단절을 나타낸다(World Bank 1996). Scharfman과 Dean(1991)은 격변하고 있는 경쟁환경이 고도의 복잡성, 역동성 및 자원의 집중적 배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경제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국가의 환경은 경제적, 법률적 환경 및 경쟁과 소비자의 기호 등 다수의 요인들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한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역동적'이다. 이와 더불어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집중적 행동이 요구된다. 다수 기업들의 투자와 아울러 신규경쟁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격화되면 전환과정에서 특히 동태적 단계에서는 자원의 희소성이 심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신성장이론과 자원우위/동태적 역량 이론은 자유화 관점에 맞추어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 국가나 “보이지 않는 손” 보다는 개별 기업과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은 신고전학파의 경제모델과는 달리, 기업과 산업 및 경제가 확정적 균형에 수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는 점에서 시장과정을 계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소모적 시스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Hunt 1997; Teece, Pisano, and Shuen 1997). 시장은 경쟁과정의 상승작용을 통하여 진화하며, 그 경로는 시장참여자와 그들이 활동하는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Nelson 1995). 이제 전환과정 중에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행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도개혁이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비효율적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거하고 수입장벽을 줄이며,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축소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환기에 있는 일부 국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나 자회사의 완전소유를 금지하는 정책의 효과를 다루지는 않았으나 상품시장, 금융시장 및 환경의 왜곡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투자를 크게 저해한다는 증거가 있다(Miller 1993; Dailami and Leipziger 1998).

최근에 제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왜곡이 제어되면 기업조직에 현저한 변화가 뒤따르며, 그 패턴은 제도개혁의 성격과 내부시장규모 및 개혁이 착수된 이후의 시간경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 간과되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는 천부의 요소자원과 요소비용의 우위를 반영하고 있는 전통산업부문(예컨대 농가공, 식품, 섬유 및 이와 관련된 제조업)이 조직역량의 개선에 가장 큰 수혜자라는 점이다(Lavigne 1999). 그러나 전환기의 혁신자가 선진국의 경우보다 기존의 역량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Oliver 1997). 조정과정이 진행되고 경제적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가장 혁신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기업들은 자신의 역량을 확대하여 사업영역을 재규정하고, 국제시장으로 진출하며, 새로운 사업부문에 집중적 다양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서 IMF 환란 이후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역량의 확대는 전환기의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의 각국에서도 발생한 현상이다. 실제로 어느 국가이든 처음부터 기업의 조직변화와 시장행동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개혁조치를 모두 완결할 필요는 없다. 필수적인 개혁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혁신적 기업가들이 출현하는 사례는 제3세계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이론이 동질적 시장구조에서 이질적 시장구조로 변모하거나 이질적 시장구조에서 동질적 시장구조로 재변모하는 동태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성과, 고객의 효용 및 경제성장을 증대시키면서 기업간의 협동적 내지 경쟁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모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5 : 시장왜곡의 제거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공급 시스템에서의 개혁이 더 많이 이행될수록 기업의 신속한 전략과 성과의 이질성은 제품의 품질개량,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원료 및 부품공급자-고객-유통경로에 대한 서비스 개선 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적응적 혁신의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6 :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영진의 독자적인 역할이 클수록, 그리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재벌그룹의 역할이 적을수록 기업의 신속한 전략과 성과의 이질성은 제품의 품질개량,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원료 및 부품공급자-고객-유통경로에 대한 서비스 개선 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혁신의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개혁의 정도와 효과가 클수록 기업들간에 마케팅 행동과 성과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신의 전략적 자원을 시장의 압력에 맞추어 배분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유형만이 가장 성공적일 것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가설 6-1 : 제품의 품질개량과 공정혁신에 적응적 혁신전략을 이용하는 기업과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보다 양호한 성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6-2 : 재벌그룹에 속하는 기업보다는 이에 속하지 않는 동종기업이 품질개량과 공정혁신에 종사할수록 양호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선진국에서 지역적으로 군집되어 있는 독자적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업들과 재벌그룹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본고에서는 전환기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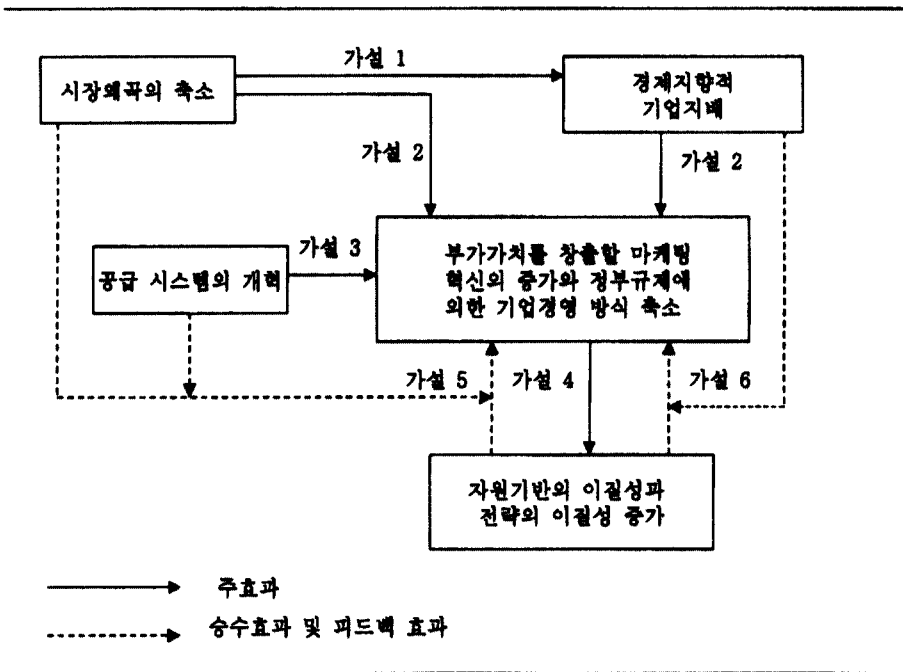
가설 6-3 : 동일하거나 보완적인 기량과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지역적으로 군집되어 있을 때에는 지역 외의 기업들보다 비용절감의 효과가 더 크고, 적응적 학습과 지식공유의 속도가 더 빠르며, 제품의 품질과 공정혁신의 개선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성장속도도 더 빠를 것이다.

가설 6-4 : 지역적으로 군집되어 있는 기업 가운데 재벌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

은 내부적으로 군집의 이점을 모방하려는 재벌그룹의 동종기업보다 성과가 좋을 것이다.

신성장이론과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 이론은 거시적 개혁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 방안이고, 기업들의 효과적 투자결정과 일반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데 어떤 개혁정책이 보다 중요한가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1>은 지금까지 언급한 가설들의 관계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에서 개혁조치와 기업행동간의 관계가 직선과 점선의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전자는 1차적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혁이 완전하게 수행될수록 시장의 이질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마케팅 혁신이 확대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2차적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혁이 수행될수록 그러한 혁신과 전략 및 성과의 이질성이 기업의 조직변화를 추동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피드백 회로의 존재는 구조개혁으로 획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적 반대급부 중의 하나이며 신성장이론과 자원우위 내지 동태적 역량이론 간의 접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제도개혁과 기업행동간의 관계



## 4. 이론과 명제에 대한 종합적 논의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거시적 차원에서의 신성장이론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자원우위론 내지 동태적 역량 이론을 접목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국가에서 제도개혁이 산업재편의 동력에 미치는 영향과, 역으로 기업행동의 변화가 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의 동력을 어떻게 추동하는가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왔다. 또한 제시된 명제들은 역사적, 지정학적 내지 경제적 유산이 각기 상이한 국가들에 걸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이론들이 동태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를 토대로 도출한 명제들은 단일의 결정론적 진화경로나 유일한 균형종착점을 예측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인과적 요인들과 피드백 메카니즘이 어떻게 광범위한 결과들을 낳을 수 있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제시된 명제들은 신속하고 완벽하면서도 광범위한 제도개혁이 기업들이 경제적 이기심을 토대로 자극에 대응하지만 학습역량이 각기 상이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각기 다른 전략을 택하는 정도에 따라 기업행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개별 산업이나 국가 총체적 성과수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보다 전문적 경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가 개혁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리고 있다는 근래의 연구결과와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Keefe and Knack 1997; Knack 1996).

### 4.1 제도개혁이 소득분배와 규제철폐에 미치는 제3의 영향

1980년대 이후의 남미 각국과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중부 유럽 각국들은 좌익과 우익의 정부가 번갈아 들어서면서 개혁과 전환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여 오고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변화와 투자도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좌익정부가 집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예컨대 연금수혜자, 고령의 노동자, 농민 등)이 시장부문을 형성하며, 이들은 과거 공산정권하에서보다 열악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계층간의 이러한 소득 격차는 1997년 환란 이후 외압으로 자본시장 개방과 고금리 정책 채택,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요받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가설 5와 가설 6은 시장혁신으로 개혁조치가 추가로 발생할 때까지 동질성이 증가하는 순환과정의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그러한 혁신이 혁신과 이질성의 파급을 더욱 추동시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칠레와 헝가리의 경우, 양국은 1997년에 이르기까지 연금제도를 사유화시키지 않았으나, 그 이후 사유화가 허용되면서 연기금간의 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종의 동질적 과점시장구조의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연기금 사유화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기금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켜 전반적인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기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본고에서 이러한 제3의 효과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경제 시스템에서 제도 내의 일반화된 교환대행거래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Carman 1980, Stiglitz 1999). 고용주는 피고용자들의 연금을 분담하는 등의 대행관계를 갖고 있고, 연기금은 자신에 투자하는 피고용자들과 대행관계에 있으며, 동일한 연기금도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고용주)들과 대행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관계들은 취약한 제도를 지탱해낼 수 없을 것이다. 전환기에 있는 국가가 <표 2>에 예시한 제도개혁을 모두 시행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경제가 바람직한 성장궤도에 들어서기 위하여 그와 같은 대행관계 중에서 건설하게 조율될 수 있는 것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남미와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의 일부 국가들은 제도개혁의 시행에 따른 소득분배의 왜곡과 규제철폐의 부작용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보다 미묘하고 흥미있는 것은 가설 5와 가설 6과 관련되는 승수효과의 존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도개혁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특히 그 실행이 이완되거나 사법적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내국인 투자도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로 이동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전환기에 있는 국가에서 흔히 발견된다.

## 4.2 기타 연구과제와 방향

모형의 최적도 면에서 <그림 1>과 가설들은 <표 2>에 예시한 여러 가지 개혁조치들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연구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예컨대 경제회복을 기할 수 있는 충분한 변수집단이 존재하는가? 물론 모든 개혁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시행될 필요가 있는가? 어떠한 개혁조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어떠한 개혁조치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데 가장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제도개혁이 기업행동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올바른 과정은 무엇인가? 전환과정의 초기에 민간저축과 투자는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분야의 문헌에서 관심을 기울이게 된 문제 중의 하나는 정치개혁과 부패제거의 속도에 관한 측정이다(Vickers and Yarrow 1991; Lambsclorff 1998; Brunetti, Kisunko, and Weder 1998). 예컨대 시장실패보다 정부규제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될 때에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때까지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만일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기업가들은 잠재적 분배우위(지대)를 가져올 투자에 매혹을 느끼고 장기적으로 사회에 편익을 줄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투자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림 1>에서 박스로 표시된 부분들은 앞에서 제안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될 측정상의 문제점들을 대부분 제기하고 있다. “시장왜곡”은 <표 2>에 예시한 다섯 개의 요인들에서 집합적으로 도출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왜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 2>에 예시한 공급 시스템의 인프라스트럭처 요소집합의 개혁속도와 그 진전 정도를 측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가설에 따라서는 기업의 이익과 성장의 성과뿐 아니라 혁신, 비용절감 및 간접관리비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구방법 중의 하나는 전환기에 있는 국가의 특정된 산업을 대상으로 비교연구하는 것이다. Carman(1998)은 헝가리와 칠레의 기업들을 사례로 그러한 연구를 행한 바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소위 “신제도 경제학” 과의 연구동향(Williamson 1985)이나 전략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는 체계적 사례분석(Parkhe 1993; Yin 1989)과도 일맥상통한다. Carman의 연구결과는 본고에서 제시한

가설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가설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제시된 명제들을 포괄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변수별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과정의 단계가 각기 상이한 국가간에 특정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마케팅 행동과 성과를 비교해 보면 개혁이 진전된 국가의 기업이 적응적 마케팅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행동의 차이가 확대되며 혁신자로서의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검증하려면 국가간의 비교가 바람직할 것이다. 검증에 따르는 어려움은 구성개념 측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설사 자료가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별로 소수의 기업과 산업을 다루게 될 때에는 필연적으로 표본규모가 문제가 된다. 개혁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공급 시스템의 개혁은 산업별로 상이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별 내지 산업별 자료는 상이한 시점에서 작성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특정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성적 접근방법을 원용하여 시순에 따른 효과행렬(effect-matrix)분석을 행한 후, 국가별로 상이한 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복 조사함으로써 수렴과 이산에 대한 효과행렬을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과정분석에서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도개혁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며 산업별 국가별로 시행되는 시점도 각기 다를 수 있다. 또한 제도개혁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과 그 결과도 특정된 시기에 발생하기보다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 있다. 그 사이에 다수의 여타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인과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확고한 결론보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명제를 토대로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기에 있는 국가가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킬 정책을 개발하려면 개혁의 성공 배후에 어떠한 요인들이 동태적으로 작용하는가에 관하여 조사를 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학에서 장기적 성장과 제도 내지 정책 특성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거시적 내지 미시적 마케팅 차원의 실증분석이 비록 어려운 과업에 속한다 하더라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4.3 우리나라의 개혁에 대한 시사점

본고에서 제시한 몇가지 가설들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여 입증하려면 <표 2>에 예시한 시장왜곡의 요인들이 각기 제거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무역개혁과 법률제도개혁은 물론 반부패를 포함한 정치개혁, 금융제도개혁, 공기업의 민영화 및 공급 시스템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개별 기업의 독자적 의사결정과 기업성과 및 마케팅 혁신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개혁<sup>5</sup>, 중앙은행의 독립과 은행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포함한 금융제도개혁, 재벌그룹을 비롯한 기업들의 투명경영,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등이 이루어져야만 본고의 가설들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혁의 우선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개별 제도개혁이 기업성과와 마케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되면 정부정책의 단계적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2001)이 제시하고 있는 향후 10년간의 개혁과제를 보면 본고의 <표 2>에 예시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적 차원에서의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sup>5</sup> 공공부문의 정치경제적 투명성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으로 전상준(2000)을 참조.

뿐만, 미시적 차원에서의 기업행동과 개혁조치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혁이 완전하게 수행될수록 부가가치를 창출할 마케팅 혁신이 확대되고 기업의 조직변화를 추동하리라는 가설들이 점차 입증되면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기업들의 효과적 투자결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적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미시적 접근방법과 이에 따른 실증주의에 연구가 편중된 점에 비추어 Hunt(200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개혁과 같은 거시마케팅 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마케팅 연구영역의 확장과 이론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 제기한 명제들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면 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철(2000), "과점구조하 기술혁신과 시장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國際經濟研究* 제6 권 제1호(4월), pp. 181-200.
- 김종일(2001), "성장모형으로 살펴본 동아시아 경제성장 전망", *經濟學研究* 제49집 제3호(9월), pp. 211-238.
- 여운승(2001), "기업의 성격에 관한 신제도학과 접근방법의 범위와 한계", *한국마케팅저널* 제3권 제2호, pp. 41-68.
- 유윤하(2001), "은행주식 소유제한에 관한 소고", *KDI정책연구* 제23권 제1·2호/2001 II·III, pp. 7-70.
- 이종화·이영수(1999), "한국기업의 부채구조 :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비교", *國際經濟研究* 제5권 제1호(4월), pp. 91-118.
- 이해춘·임병인·정현식(2001), "주요국의 개방경제 지속가능성과 그 변동요인 분석", *國際經濟研究* 제7권 제2호(8월), pp. 135-162.
- 전상준(2000), "정치경제적 투명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국제 횡단면 자료분석", *經濟學研究* 제48집 제3호(9월), pp. 287-323.
- 전인우(2000),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다기화와 이윤율", *國際經濟研究* 제6권 제1호(4월), pp. 201-222.
- 전택수(1998),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보인 전통문화의 역할", *經濟學研究* 제45집 제3호(6월), pp. 95-122.
- 조성욱(1998), "기업의 소유구조가 인센티브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정책연구/1998 III·IV*, pp. 65-109.
- 최윤재(2000), "개혁과 저항 : 정치경제적 갈등의 이론적 측면에 대한 검토", *經濟學研究* 제 48집 제4호(12월), pp. 225-259.
- 최정표(2000), "그룹식 기업경영의 전략적 역할에 관한 실증연구 : 한국의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經濟學研究* 제48집 제2호(6월), pp. 21-34.
- 한국개발연구원(2001), 2011 비전과 과제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 한국은행(2002), "2002년도 정부예산 개요", *Monthly Bulletin* March, pp. 53-72.
- 한진희(1999), "재벌기업의 과잉투자 및 그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KDI정책연구* I, pp. 5-58.
- 한진희·김종일(1999),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KDI 정책연구* III·IV, pp. 144-213
- Alesina, A., and Robert Perotti(1994),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A Critical Survey of the Recent Literature",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8(September) : pp. 351-71.
- Arnold, D. J., and John A. Quelch(1998), "New Strategies for Emerging Markets", *Sloan Management Review* 40(June) : pp. 7-20.
- Aulakh P. S., Masaake Kotabe., and Hildy Teegen(2000), "Export Strategies and Performance of Firms from Emerging Economies : Evidence from Brazil, Chile, and Mexico," *Academy of Marketing Journal* 43 (3) : pp. 342-61.
- Austin J. E(1990), *Managing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 Free Press.
- Barney, J(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 Management* 17 (1): pp. 99-120.
- \_\_\_\_\_ (1999), "How a Firms Capabilities Affect Boundary Decisions", *Sloan Management Review* (spring), pp. 137-145.
- Barro R. J(1996), "Democracy and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1 (1) : pp. 1-27.
- Brunetti, A., Gregory Kisunko., and Beatrice Weder(1998), "Credibility of Rules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a Worldwide Survey of the Private Sector",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 (September) : pp. 353-84.
- BusinessWeek*(2002), "Russia's New Wealth" (Aug 5), pp. 34-42.
- Canning D.(1998), "A Database of World Stocks of Infrastructure, 1950-1955",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 (3) : pp. 529-47.
- Carman J. M(1980), "Paradigms for Marketing Theory", In *Research in Marketing*, Vol.3, edited by Jagdish N.S., pp. 1-36. Greenwich, CT : JAI
- \_\_\_\_\_ (1998), "Survey of Comparative Institutional Reforms", Working Paper, Haa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Cool K., and I. Dieickx(1993), "Rivalry, Strategic Groups and Firm Profitabilit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 (1) : pp. 47-49.
- Dailami, M., and Danny Leipziger(1998), "Infrastructure Project Finance and Capital Flows : A New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26 (7) : pp. 1283-98.
- Dawar, N., and Tony Frost(1999), "Competing with Giants : Survival Strategies for Local Companies in Emerging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77 (March-April) : pp. 119-29.
- Dominguez, L.V., Luis Escobar., and Paula Murua(1997), *Chilgener and the Battle of the Pipelines*. Santiago, Chile: Universidad Gabriela Mistral.
- Dyer, J. H., and Harbir Singh(1998), "The Relational View : Cooperative Strategy and Sources of Interorganiz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4) : pp. 660-79.
- Edwards, S(1993), "Openness, Trade Liberalization,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 (September) : pp. 1358-92.
- Frazier, G. L., James D. Gill, and Sudhir H. Kale(1989), "Dealer Dependence Levels and Reciprocal Actions in a Channel of Distribution in a Developing Country", *Journal of Marketing* 53(January) : pp. 50-69.
- Frazier, G. L., and Sudhir H. Kale(1989), "Manufacturer-Distributor Relationships: A Sellers' versus Buyers' Market Perspective",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6 (6) : pp. 7-26.
- Garelli, S (1998),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Lausanne Switzerlan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Gillespie, K., and Hildy Teegan(1995), "Market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 Alliance Formation: The Mexican Paradigm",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30 (Winter) : pp. 58-69.
- Grossman, G. M., and Elhanan Helpman(1990), "Trade, Innovation, and Growth" , *American Economic Review* 80 (May) : pp. 86-91.
- Hansen, G. S., and Birger Wernerfeldt(1989), "Determinants of Firm Performance: The

- Relative Importance of Economic and Organizational Factor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 : pp. 399-411.
- Henderson, R., and Kim Clark(1994), "Architectural Innovation : The Reconfiguration of Existing Product Technologies and the Failure of Established Fir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 (1) : pp. 9-30.
- Hunt, S. D(1997), "Resource-advantage Theory an Evolutionary Theory of Competitive Firm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Issues* 31(May) : pp. 59-77.
- \_\_\_\_\_ (2000), *A General Theory of Competition*. Thousand Oaks, CA : Sage.
- \_\_\_\_\_ (2002), *Foundations of Marketing Theory*. New York : M. E. Sharpe.
- Hunt, S. D., and Robert M. Morgan(1995), "The Competitive Advantage Theory of Competition", *Journal of Marketing* 59 (April) : pp. 1-15.
- Ickis, J. C(1997), "Mavesa : Strategic Alli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8 (1) : pp.77-86.
- Keefer, P, and Stephen Knack(1997), "Why Don't Poor Countries Catch Up? A Cross-national Test of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Economic Inquiry* 35 (July) : pp. 590-602.
- Khan, K. M(1986), *Multinationals of the South*. New York: St. Martin's.
- Khanna, T., and Krishna Palepu(1997), "Why Focused Strategies May Be Wrong for Emerging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75(July-August) : pp. 41-51.
- \_\_\_\_\_ (1999a), "The Future of Business Group in Emerging Markets: Long Run Evidence from Chile", Working Paper, Harvard Business School, Division of Research, Boston.
- \_\_\_\_\_ (1999b), "The Right Way to Restructure Conglomerates in Emerging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77 (July-August) : pp. 125-34.
- Klepper, S., and Elizabeth Graddy(1993), "The Evolution of New Industries and the Determinants of Market Structure", *Rand Journal of Economics* 21 (1) : pp. 27-44.
- Knack, S(1996), "Institutions and the Convergence Hypothesis: The Cross-cultural Evidence", *Public Choice* 87 : pp. 207-28.
- Lambsdorff, J. G(1998), *Corruption Perception Index: Annual Report*.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 Lavigne, M (1999), *The Economies of Transition -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St. Martin's.
- Leonard-Barton, D(1992), "Core Capabilities and Core Rigidities: A Paradox in New Product Develop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3 : pp. 111-25.
- Mascarenhas, B., Alok Baveja, and Mamnoon Jamil(1998), "Dynamics of Core Competencies in Leading Multinational Compani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0 (Summer) : pp. 117-32.
- McKee, D. O., Rajan Varadarajan, and William M. Price.(1989), "Strategic Adaptability and Firm Performance: A Market Contingent Perspective", *Journal of Marketing* 53 (July) : pp. 21-35.
- Miller, K. D.(1993), "Industry and Country Effects on Manager's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Uncertain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4 (4) : pp. 693-714.

- Moran, P., and Sumantra Ghoshal(1999), "Markets, Firms, and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 (3) : pp. 390-412.
- Narver, J. C., and Stanley F. Slater(1990), "The Effect of a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rofitability", *Journal of Marketing* 54 (4) : pp. 20-35.
- Nelson, R. R(1994), "The Co-evolution of Technology, Industrial Structure, and Supporting Institution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3 : pp. 47-63.
- \_\_\_\_\_ (1995), "Recent Evolutionary Theorizing About Economic Chang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 (March) : pp. 48-90.
- North, D. 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Tim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 (June) : pp. 359-68.
- Oliver, C(1997),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Combining Institutional and Resource-based View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 (9) : pp. 697- 713.
- Parkhe, A(1993), "Messy Research, Methodological Predispositions, and Theory Development on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 : pp. 227-68.
- Perez-Aleman, P(2000), "Learning, Adju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 Transforming Firms, the State and Associations in Chile", *World Development* 28 (1) : pp. 41-55.
- Ramamurti, R(1987), *State-owned Enterprises in High Technology Industries*. New York: Praeger.
- Romer, P. M(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October), S71-S102.
- \_\_\_\_\_ (1994), "The Origins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 (Winter) : pp. 3-22.
- Rossant, J(2002), "Why Europe Can't Ditch the Free-market Model", *Business Week* (Aug 5), p.30.
- Rumelt, R. P(1991), "How Much Does Industry Matter",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 (3) : pp. 167-85.
- Scully, G. W(1998),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 (June) : pp. 652-62.
- Sharfman, M. P., and James W. Dean(1991),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Management* 17 (4) : pp. 681-700.
- Slater, S. F., and John C. Narver(1995), "Market Orientation and the Learning Organization", *Journal of Marketing* 59 (3) : pp. 63-75.
- Stern, L. W., and Torger Reve(1983), "Distribution Channels as Political Economies: A Framework for Comparative Anaysis", *Journal of Marketing* 44 (Summer), pp. 52-64.
- Stiglitz, J. E.(1999), *Whither Reform? Ten Years of the Transition*. Washington, DC: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 Strategy Research Corporation (1999), *Latin American Market Report*. Miami, FL: Strategic Research Corporation.

- Teece, D. J., Gary Pisano., and Amy Shuen(1997),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 (7) : pp. 509-33.
- Vargas Llosa, M(1991), *A Writer's Reality*.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Weisman, L(1996), "The Advent of Private Equity in Latin America",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31 (Spring) : pp. 60-68.
- Williamson, O. E(1985), *The Economic Institution of Capitalism*. New York : Free Press.
- Wilson, E. O.(1998),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Knopf.
- World Bank(1996), *World Development Report*. Washington, DC: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Yin, R. K.(198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Newbury Park, CA: Sage.